

폭우·무더위에… 채소가격 ‘천정부지’

상추·시금치·애호박 등 최고 4배 급등



장마와 함께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우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 사이 상추와 시금치 등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가격 정보에 따르면 장마에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시금치와 상추, 부추, 풋고추 등 채소 가격은 적게는 10%, 많게는 110% 이상 급등했다.

상추 4kg의 도매가격은 10일 8355원, 12일 1만3150원, 15일 3만7610원으로 급등했다가 16일에는 1만7154원으로 떨어지는 등 크게 출렁였다.

시금치 4kg당 도매가격은 10일 1만

3086원이었으나 12일 1만5707원, 15일 3만6006원, 16일은 4만2788원까지 치솟았다.

애호박 역시 20개 한 끓음이 10일에는 7087원에 팔렸으나 12일에는 8894원, 15일에는 1만6592원, 16일에는 2만1645원에 거래됐다.

배추와 오이도 16일 가격이 10일 가격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마트의 경우 엽채류 등 채소 가격은 적게는 10%, 많게는 110% 이상 급등했다.

상추 4kg의 도매가격은 10일 8355원, 12일 1만3150원, 15일 3만7610원으로 급등했다가 16일에는 1만7154원으로 떨어지는 등 크게 출렁였다.

시금치 4kg당 도매가격은 10일 1만

오른 830원에 판매되고 있다.

오는 개당 판매가가 폭우 전에 비해 37%나 올랐고, 애호박은 전주에 880원 하던 것이 1880원 올라 113%나 뛰었다.

양동시장의 채소 소매가격도 눈에 띄게 올랐다.

시금치(1kg)의 경우 2주 전 4000원 하던 것이 현재 8000원에 팔리고 있다. 50%나 많이 오른 셈이다.

600원선에 팔던 상추(1kg) 역시 50% 오른 1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애호박 역시 20% 오른 1200원에 구매 할 수 있다.

이처럼 채소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이를 장마로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이 줄어든데다 무더위

까지 겹치면서 생장 속도가 늦어져 산지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15일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내린 집중 폭우로 산지 수확작업이 늦어지면서 일부 채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양파와 마늘은 이미 수확이 끝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로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배추와 무는 직접적인 허우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대부분 저지대에서 노지재배하는 상추와 시금치는 일부 폭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 2~3주가량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출사기 피해자 일부 환급 받는다

별도 소송없이 가능

앞으로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도 피해금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저신용 고객이 선수금 명목으로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대출을 해주겠다던 사람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2~12월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며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미수범 포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에 따라 사기죄와 같은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수집, 예보·경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KJB카드 여름축제’ 이벤트

광주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8일까지 ‘KJB광주카드’ 시원한 여름축제(룰 썬더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JB광주카드 이용 회원들에게 광주·전남지역 물놀이장 입장권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 중흥골드스파 리조트 ‘워터파크’ 이용 시 카드사 최고인

/최제호기자 lion@kwangju.co.kr

청약통장 가입자 1600만명 육박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6월 말 현재 1596만1244명으로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부동산씨브가 16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 출시 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1년 3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고 같은

해 4월에 1507만168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년여 동안 1500만명을 밟돌았다.

그러나 올해 4월 1546만1858명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부동산씨브가 16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

출시 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1년 3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고 같은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업계 최초 ‘ISO 22000’ 인증

안전성 관리 국제기준 인정

하이트진로는 한국품질보증원으로부터 업계 최초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 22000’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국내 최대 맥주 생산시설인 강원공장이다. 인증범위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맥주·캔맥주·페트맥주·생맥주 등 전체 맥주 제품이다.

기준 품질경영 시스템 국제규격

인 ISO 9001을 획득해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를 인정받은 하이트진로는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 관리에 있어서도 국제기준을 인정받게 됐다.

ISO 22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ISO 회원국·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국제식품안전협회(GFSI)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식품 생산·제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효과가 있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 규격이다.

ISO 22000은 국내 위생관리 시스템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식품관리 종합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HACCP는 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의 전 단계에서 생물학·화학·물리 위해요소가 흔히 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제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경제이슈’ 발간 한국은행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6일 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광주전남 경제이슈’ 창간호를 발간했다.

‘광주전남 경제이슈’는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 주요 지역개발 정책, 지역 금융 시장 및 최근 경제 현상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이번 창간호에는 ‘최근 전남지역 귀농귀촌 현황과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http://www.bok.or.kr/gwangju)에 ‘지역경제정보’→‘조사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성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홍보팀 과장은 “앞으로 보고서에는 ‘광주전남 지역 경제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보다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흥산림조합장, 주체화 보성산림조합장 및 인근 보성·고흥지역 아동센터장과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국산목재로 만든 책상과 의자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등에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산에 버려지고 있는 간벌재의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목재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국산목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번 기증하는 책상과 의자는 1인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란 낙엽송을 집성목과 합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무늬결이 아름답고 책상과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난 12일 고흥군 남양면에 소재한 고향사랑 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기증식은 국회농립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 송영현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 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2000.co.kr>

무안 – 심양전세기 [7/26~9/30 매주 월,수,금]

심양 / 백두산서파 5일[월]

일 금 1,090,000 특 급 1,190,000

불포함: 유류세(W86,000), 기사/기아드 팀

심양/백두산[서파/북파] 6일[수/금]

일 금 1,190,000 특 급 1,290,000

불포함: 유류세(W86,000), 기사/기아드 팀

무안공항에서 동방항공으로 떠나는 상해/구체구 6일

ALL 포함 1,299,000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규슈 !! 일본 규슈 온천 관광

ALL포함!!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야마카세 별장 온천 즐기기 4일

399,000~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전통온천 야마카세 온천 즐기기 4일

539,000~

나가사키,

유류세의 하우스테이브스 4일

629,000~

출발일 7/26, 7/31, 8/10, 8/11, 8/18, 8/23, 8/28

*출발 가능한 인원: 최소 6명, 최대 23명

*불포함 시장: 선내식사 3식,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ALL포함!!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동굴온천 4일 1,100,000~

온천으로 떠나는 일본 제의의 삼양도시 오사카&아베노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풍경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필리핀여행

7월 25일부터 무안→마닐라 직항(매주목, 일요일 출발)